믿음은 하늘 높이, 교만은 산 높이

(역대하 32:24~33)

24.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하늘 높이, 교만은 산 높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하늘 높이, 교만은 산 높이'
저는 삼형제 중의 막내입니다. 형님들은 환갑이 넘었고 금년에는 형수님들도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에 확고하게 생기는 깨달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목사님들이 겸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젊었을 때에는 으레 하는 말씀으로만 들었고 감명 깊게 들었을 때에도 겸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철이 없던 때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음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겸손함은 마음이 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는 마음이 하늘 높이만큼 높아져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늘 높이를 유지할 수 없다면 믿음이 지속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지속되는 상태일 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덕이나 산이 높은 곳이지만 모두 땅에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은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럴 때에 산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뜻합니

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일류대학 등일 수 있고 요새는 훌륭한 외모가 중요한 가치로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많이 쌓인 곳이 산이고 언덕입니다. 이곳에 올라설 때에 마음은 높아지게 되고 교만해져서 그 가치의 더미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도다'라는 시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높아도 하늘보다 높은 산은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은 외통수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하늘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산에 있는 어떤 자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은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산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은 하늘에 가있는 마음은 땅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가 용서 받기를 위해 기도드리셨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마찬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할 때에, 마지막 자기변호의 기회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 믿게 되기를 전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너무나 높아서 아예 하늘로 올라가버린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낮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늘에 올라가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되자, 이 세상에 있는 가치의 언덕과 산들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곳을 지향해서 가치의 산을 올라갈 때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낮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상 그 마음의 실질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아서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하늘에 마음이 가있는 자는 이 땅에 살 때에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선민의 유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교만하고 싶다는 소원을 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민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늘 높이를 산 높이로 바꾸고 싶은 유혹입니다. 산 높이에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망하고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이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익명의 영웅으로 남아야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 육체가 땅에 머물면서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은 적들에게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된 사람이 육체가 머무는 땅에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낚시질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미 하늘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혹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남 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탁월한 성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 뜰에 세웠던 이방의 우상제단을 허물었고 폐쇄되었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전 생활화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와 제사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 십일조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서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였고 익명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과 행동을 예표적으로 행해왔던 왕이 갑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십오 년 수명을 허락받습니다. 이 십오 년 수명 연장에 대한 증표를 구하여 일영표 상에서 해의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있은 후에 31절에 바벨론의 방백들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병문안을 위한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오는데 적잖은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히스기야가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성이 그 먼 바벨론에까지 퍼져서 사신들이 불원천리 병문안을 왔다는 사실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 해야 했지만, 자신의 명성이 허황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전에서는 교만을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염두에 두고 교만을 정의해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의 양쪽으로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뜻하는 바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배부름입니다. 등대가 뜻하는 바는 이렇게 배부르고 만족함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판단과 분별입니다. 또한 분향단이 뜻하는바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에 이러한 배부름과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뜻하는 말씀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구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추구해서 배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담으면, 분향단이 의미대로 돈을 추구하게 되고 떡상과 등대가 의미하는 대로 돈으로 배불러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삼성의 이재용 씨와 대주주들은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의 이익을 본 반면에, 합병을 허락한 국민연금은 1,300억을 손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인해 마음이 기쁨과 만족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벌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8,000억이 아니라 8조를 벌고 8,000조를 벌어도 인간의 마음은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 권력 학벌 일류대학 등을 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손에 얻었다고 해서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의 떡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에 자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오기를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대체만족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긁어모으고 성공을 하더라도 실제로 만족은 없습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웃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걱정되며 짜증납니다. 그러한 마음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낌으로 마음을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벌고도 마음이 메워지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야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자기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기만입니다.

선민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동안에 몸이 만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행하시는 동안에 형통이 이루어지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성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마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와 산 높이에 머물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이룬 것으로 보이며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던 금은보화들이 재앙이 씨앗이 되어서 성전이 훼파되고 BC.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중히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적 역사에 대해 십자가에서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은총으로서 이삭을 내려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마음에서 죽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들이 내 삶에서 축적되고 있습니까? 이제 나의 적은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은총의 역사들이 내 마음에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가야만 합니다. 고이면 흙더미가 되고 산더미가 되어 내 마음이 그 위에 올라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나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의 gift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독일어로는 독입니다.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독살시킨 바로 그 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선물입니다. 영어의 gift이지만 마음이 흘려보내지 않고 은총의 산더미로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총의 역사를 지상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한시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내 마음에서 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은총의 산더미를 쌓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중단되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징계와 채찍의 역사가 시작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만이 높은 것인데 더 높고 차원이 다르게 높아서 마음이 하늘에 머물 수 있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역사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